

## [ 오피니언 ]

## 기자하 칼럼



내가 주체란 표현을 쓰자니 우습다. 똑  
북조선 짹통 같아서다. 그러나 언어란 공  
용의 재산이다. 함부로 쓰는 자가 문제지  
옳게 쓰는 사람입니다.

옳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옳게 사는  
사람이기도 한 법이다. 누가 옳게 사는 사  
람일까? 옳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  
까?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  
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러나 그리 쉬  
운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아는 길 중의 하  
나가 바로 우리를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를 아는 일이다.

그래 그 주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 또한 그리 쉬운 대답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 문제이겠다. 어찌보면 유산자, 종산  
총, 비즈니스맨, 지식인들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이라고 서슴  
없이 말한다.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고 대  
답하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으  
니 어떻게 사는 사람이 주체냐 하는 것이  
고 그럴 땐 왜 그러냐하고 묻는 속에서 그

사회적 삶의 바람직한 철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야말로 바람직한 철학적 대답이  
나오는 법이다. 또 그것이 나올 때 바로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한 삶의 삶다운 개선 행

## 우리 삶의 주체

위가 시작되는 것이며 비로소 그 삶과 사  
회는 제대로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과연 주체가 누군가? 그것은 시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고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주체로 되  
는 것일까? 이 시대를 쉽게 규정하는 것  
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쉽  
지 않다고 해서 또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난해 별 서울 시정 앞 촛불시위  
때 이런 글을 인터넷 신문 브레이브에 기  
고한 적이 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  
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체가 나왔다.  
요컨대 유럽에 대한 세계지배의 전

그들은 인류역사상 단 한번도 주체가 돼  
본적이 없는 ‘꼬래비들’, 즉 미성년, 젊은  
주부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노인, 흠리  
스를 포함한 쓸쓸한 대중들이었다”라고.

이제 과연 새로운 시대라고 부를 만한  
때가 시작되었는가? 되었다. 유럽 보수  
경제학의 온상인 ‘마아가렛·대처룸’ 안에  
그대로 앉은 채 영국 보수파 총리 고든·브

라운이 월, ‘워싱턴 콘센서스는 끝장났다.  
이젠 보수도 진보도 그 하나만으로는 경  
제학도 정치학도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

운 시대가 오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란  
가!) 예수복음의 그 ‘네페쉬하야들’이고 ‘에  
루살렘 입성’과 ‘무덤에서 부활하는 하늘  
나라의 주인공들’이며, 정역의 바로 그 ‘기  
위친정’ 때의 삽입일언(十一言)의 주체  
들 아닌가! 정말 새 시대 새 삶의 주체들  
이 이들 아닌가!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긴급한 위기 대  
응의 뉴딜 경우니까 그렇지’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날 200여명의 좌우 사회과학자 거의 전원  
이 대체적으로 합의된 공론의 흐름이 이  
제작 단 한번도 서양식 사회과학이 사회  
적 주체로서 다른 적이 없는 바로 이들이  
야말로 이제부터 오고 있는 새 시대에는  
참으로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과  
연 새시대는 새시대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의료 칼럼



김종석

바티칸에 있는 유명한 전지창조 그림  
에서 미켈란젤로는 조물주가 인간을 창  
조하는 찰나를 조물주와 인간의 접계순  
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모습으로 표현  
했다.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미켈란젤로도 다  
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이다. 조물주는 자신과 가장 닮은 인간  
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도록 자신의  
손을 주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  
지 않았을까?

한다. 인간의 손에서 엄지손가락의 기  
능은 손 전체 기능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핀셋으  
로 작은 물건을 꼭 잡아야 하는 것은 고  
도의 섬세한 감각과 정밀한 운동 능력  
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손뿐만 아니라  
눈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  
며, 이는 뇌에서 조절해야 가능한 작업  
이다. 즉, 손의 발달이 뇌의 발달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손이나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상처가 치유되거나 부러진 뼈가  
붙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를 종

## 손의 의미

그런데 왜 가장 인간적인 것을 나타  
내는 방법으로 손을 사용했을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점은  
문법적 구조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점  
과 함께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점  
이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사령탑 역할  
을 하는 대뇌 피질 사용 면적을 보았을  
때, 다른 동물들은 얼굴과 주둥이가 가  
장 크지만, 인간은 얼굴과 함께 손이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만큼 인간  
에게 있어서 손은 인간을 인간에게끔  
하는 중요한 장기이다.

그런데, 손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  
가?

손은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디쳤을 때 치료하거나 재활 치료할 때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진  
료 현장에서는 손은 생명에 지장이 없  
기 때문에, 디쳤다고 하더라도 겹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감이 없  
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를 다친 경우보  
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가?

인간의 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손  
을 이용하여 잡기, 취기, 집기 등을 이용

종 보게 된다. 손가락의 운동은 복잡 미  
묘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가급  
적이면 빠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손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또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잘못된 상식이 널  
리 퍼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손  
저림으로, 대부분의 이 증상은 손목을  
많이 쓰는 주부에게서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혈액 순환에 되지 않아서 손  
이 저리다고 생각한다. 일견 맞는 이야  
기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틀린 얘기  
다.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이 놀라 나타나  
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인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  
운 일은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악기 연  
주하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중주 신  
경계가 구조적 기능적 작용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손은 단순히 두뇌  
가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두뇌를 자극시켜 발달시켜 주는 존재  
이다. 즉, 창조적인 인체의 기관이다.  
이렇듯 중요한 손은 정말 세심한 관심  
과 배려가 필요하다.

〈상무병원 정형외과 원장〉

## 불심검문 경찰을 반복의 대상으로 보아서야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검문을 하고 있  
는 경찰관들을 자주 접한다. 이분들은 무면  
허 운전자나 빙소니 운전자, 또는 각종 범죄  
도피자 등 범인들의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  
이라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찰들을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꾼이요, 막 대체로 되는, 자신만을  
검문하는 불공평한 경찰로 보는 운전자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불심검문하는 경찰  
들은 반복의 대상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마스크 하나 없이 그 무수한 매연  
을 마시며 뚱뚱한 직무에 충실한 경찰경찰  
관에게 막 대하거나 거친 불만을 표시하는  
건 민주시민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감히 말  
하고 싶다. 그분들이 거칠게 대하며 반발심  
을 갖기보다는 내가 떠帙하게 법을 지키며  
살고, 그분들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과 재산과 안녕을 지켜준  
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선희·목포시 놀동동

## '세균독설' 진료복 입고 식당가지 말아야

며칠 전 당뇨를 앓고 계신 어머님을 모시  
고 모 병원에 갔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구내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구내식당에는 이미 병원  
의사인 듯한 가운을 입은 사람들, 간호사,  
병문을 온 사람, 기타 제복을 입은 사람 등  
여러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약간의 아스屈운 생각이 들었다.

유니폼은 환자를 대하는 병실 내부에서나  
입고 있어야지 환자나 외부인 수많은 사람  
이 오가는 식당에 그 가운을 입고 내려와 함  
께 식사를 하고, 그 상태로 다시 올라가 힘

자를 대면하고 진료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  
도 이해가 안 된다.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면역력  
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오히려  
감염이 돼서 치명적인 질병을 얻는 경우  
가 적잖다. 이런 병원 내 감염의 책임은 이  
렇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의사와 간호  
사들에게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진료복은 병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식당에 내려갈  
때는 진료복을 벗고 가는 게 옳다고 본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 시설

## 지역현안 '나몰라' 하는 민주, 배신감 크다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F1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 종점주진법안에 포함시  
키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  
국회 중점주진법안으로 소득세 및 법인  
세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강화법, 비정  
규직 혜소법 등 30개 민생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렸던 지역  
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F1대회는 국가와 전남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꿈의 프로젝트'이다.  
만약 F1 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1년여 앞으로  
전남도의 F1 대회 유치는 차질이 불  
가피하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F1  
지원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  
역현안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선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경제권이 배정되는 '5+2 광역경  
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1월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5  
+2 광역경제권'은 그렇지 않아도 삼화  
된 영호남의 지역격차가 고착화되고  
호남권의 성장 추동력이 상실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 막을 소지가 큰  
'악법'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지역의 미

## 교과부, 朝大 임시이사 체제 강행 저의 뭇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선대에 임시이사  
를 재파견하려 해 논란이다. 교과부  
는 지난달 26일 학사분장조정위원회  
(사분위)에 임시이사 후보 18명의 명단  
을 통보했다. 지난 1998년 이후 계속된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간의 임시이사 체제가 대  
학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지난 2006년 학교 운영 정상  
화에 따라 정시아 체제 전환을 촉구해  
놓고 이제 와서 임시이사 체제를 고집  
하는 것은 판 뜻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  
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가 사분위에 넘기 임시  
이사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구 재단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  
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 교수들도 21년  
만에 비상회의를 열고 "구 재단의 입김  
이 작용한 정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결  
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시이사 재  
파견이 강행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  
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사학을 대표하는 조  
선대가 또다시 학내문제로 소요와 분규  
를 겪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과 지역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미국 달러화는 다른 국가들이 대외  
무역 결제와 자산축적에 사용하는 기축  
통화(基軸通貨)다. 한 때 히틀러가 구상  
했던 '세계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달러화가 요즘 궁지에 빠졌다.  
미국이 금융위기로 중국 등 주요  
국들이 달러화 가치에 의문을 품고 새  
로운 기축통화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원조는 영국의 파운드화였다.  
파운드화는 대영제국의 막강한 부를 배경  
으로 1870년대부터 국제 거래의 통화수단  
이 됐다. 파운드화는 하지만 전후 세계경제  
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의 달러화에 그 자  
리를 넘겨준다. 1944년 브雷頓우즈 체제 탄생으로 국제통화  
기금(IMF)이 창설되고, 이때부터 달러  
화가 통화폐권을 장악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달러 이외의 기  
축통화를 필요로 한다. 아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달러 이외의 기  
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달러 쪽에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달러 이외의 기  
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달러 쪽에 있다. 아예 대  
통령으로 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달러 이외의 기  
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달러 쪽에 있다.

었다. '현실적으로 달러를 대신할 기축  
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  
서다.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은데다, 외  
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달러인 우리나라  
로선 당연한 선택이겠다. 그래도 우리  
의 제1 교역국인 중국이 반 달러세력의  
주력이라는 것이 신경 쓰인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 부록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92	문화 1부	2200-511	문화 2부	2200-51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7-0005〉	〈F A X 222-8005〉	〈F A X 222-521	〈F A X 222-0651〉	〈F A X 222-0651〉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온라인서비스부	2200-679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온라인서비스부	2200-679		